

한국출판문화의 역사적 궤적

「한국출판문화변천사」 「한국출판사연표」



한국출판문화의 역사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출판물의 생산자와 보급 및 수용자 등 출판문화의 주체를 중심으로 살핀 「한국출판문화 변천사」(백운관, 부길만 지음)와 한국 근대의 출판활동에 관해 출판물과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한국출판사연표 I」가 그것.

출판물 유통성립과 발전의 역사적 고찰에 중점을 둔 「한국출판문화변천사」는 유통의 측면에서 출판과 사회와의 상호영향관계가 시대마다 얼마나 역동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1부는 기존 한국출판사와 유통사의 시대구분을 검토했는데, 조선중기와 8·15해방을 각기 중심축으로 도서수용층의 성장발달과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서출판물유통사의 전개가 이뤄졌음을 밝혀보고 있다. 2,3부는 구체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중기, 16세기 후기부

터 일제시대까지 도서출판물 유통양태와 질적 변화 양상을 살폈고 4부는 해방이후 극심한 혼란기의 출판계 침체현상을 거쳐 1970년대까지의 도서유통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70년대까지의 전근대적 도서유통체계는 90년대의 세계체제변화와 국내 ISBN제도 실시, 남북한 교류 등으로 출판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으며 따라서 가장 낙후된 도서유통체계의 현대화작업이 긴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1881년부터 1910년까지 30년간의 출판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정리한 「한국출판사연표」는 서적, 잡지, 신문 등의 출판물과 정책, 상소, 출판운동, 법률 등의 사건을 일별로 수록했다. 출판물은 저자나 역자, 편자, 간행처나 간행자, 권수, 표기언어, 면수, 제작양식, 판권기록, 출전 등을 표시하고 간략한 해제를 덧붙여 기초자료로서 유용하도록 엮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출판이 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 궤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연표는 그대로 우리나라 출판의 발달변화와 역사적 격랑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판역사의 요긴한 자료다.

타래 / B5변형 / 296면 / 10,000원
출판연구소 / B5 / 188면 / 7000원

주제별로 편집한 유아용 그림동화

국민서관 '어린이나라' 시리즈



전9권으로 기획한 그림동화시리즈 가운데 전래동화와 세계동화, 생활동화의 주제별로 나눠 이야기를 모은 유아용 그림동화. 각권의 이야기는 펼친 면마다 한편씩의 동화를 10개의 장면으로 나눠 산뜻한 일러스트에 담아서 유아들의 상상력과 통찰력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전래동화를 모은 「옛날 옛날에」(그림 유애로)는 사람이 되고 싶은 호랑이와 꿈이 환상을 찾아가 결국 인내심 많은 꿈이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신한다는 「사람이 되는 꿈 이야기」와 「홍부와 놀부」 「나무꾼과 선녀」 「효녀 심청」 등 우리나라 옛날이야기를 짙은 장면장면에 절묘하게 압축한 그림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계동화를 묶은 「숲속이야기」(그림 문영미)와 「요정이야기」(그림 위승희)에는 각각 세계 각국의 동화 다섯편씩을 담았는데 숲속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숲속이야기」 편

에는 「빨강모자」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사슴이 된 동생」 「용감한 막대동이」가, 요정이 등장해 착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담긴 「요정이야기」편에는 「신데렐라」 「잠자는 공주」 「우물가의 요정」 「피노키오」 「당나귀 가죽」 등이 실려 있다. 요술처럼 펼쳐지는 동화 속의 세계를 재미난 표정과 풍부한 동작, 선명한 색깔로 표현해 유아들이 흥미롭게 대할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의 하루생활을 「상쾌한 아침」 「즐거운 놀이방」 「맛있는 점심시간」 「신나는 놀이터」 「달콤한 꿈나라」 등의 시간별로 나누어 이야기로 엮은 「즐거운 하루」편은 장소마다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 협동심과 사회성,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편의 동화를 10개의 장면으로 나눠 압축한 장점이 때로는 이야기 전개상 비약이 많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부모가 함께 그림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보충해 들려주면 훨씬 풍부하게 이야기를 소화해낼 수 있다. 국민서관 / B5 / 각 12면 / 각 3500원

“운정과 함께 출판계의 힘찬 미래를!”

미려하고 다양한 서체를 갖춘 전산시설과 오랜 경험 그리고 노력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저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pull page 조판으로 편집이란 단어를 오랜 기억에서 지워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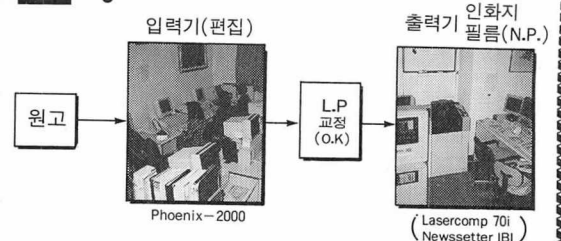
마포 · 용강동으로 이전했습니다.

雲亭文化社 121-070 서울 · 麻浦區 龍江洞 494-48
電話 表: (02) 711-5515 FAX: 711-5517
電算 · 入出力室: (02) 711-5516 Modem: 711-5518

주업무

- 제작대행 { 사전류
교재(대학 · 어학교재 등)
학습물(교과서 · 참고서 · 학습지 등)
월간지 · 사보 · 단행본
기타

P·C호환 : 각종 퍼스널 컴퓨터로 제작된 Disk Data(원고)를 99% 호환시켜 출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Total publishing System

한국컴퓨터그래피 전산 입력편집기 phoenix-2000 7대 · HCG-8305 7대. 각종 컴퓨터 컴버전(호환) 전용 32bit P·C 4대. 레이저프린터 캐논 1대. 고해상도 출력기 Newssetter(IBM) 1대 · Lasercomp 70i 1대.

보유기기

단 한판의 명승부 그린 바둑소설

가와바타 야스나리 지음 「名人」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1968)을 수상, 수상작품인 「설국」으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작가(1899-1972)의 바둑소설. 1951년 「新潮」에 연재했던 작품으로 바둑사의 대승부를 소재로 바둑명인의 생을 건 정신의 드라마를 그려낸 소설이다.

不敗의 명인 혼인보 슈사이가 예순일곱의 나이로 마지막 승부바둑을 벌인다. 상대는 吳淸源과 함께 신포석을 발표하며 바둑사의 새 장을 열고 있던 정상급의 젊은 棋士인 기타나 미노루 7단. 실제 있었던 이 역사적 바둑은 1938년 6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반년여에 걸쳐 두어졌는데, 바둑을 관련한 작가가 장장 반년에 걸친 혼신의 승부를 「名人」이라는 소설적 구도로 탄생시켰다.

바둑을 소재로 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슈사이 명인과 그에게 도전하는 오다케 7단의 바둑두는 이야기로 엮어지는 이 소설은 사건

다운 사건도 없고 등장인물도 단조롭다. 어찌 보면 지루하기만 한 이 소설 속에서 작가는 한판의 바둑에 던져넣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기쁨과 슬픔, 분노의 감정을 담담한 관전자의 눈으로 그려간다. 작가는 때로 두 승부자의 망연한 시간의 공간 속을 좇으며 대국의 긴장 너머에 있는 공허한 정신세계를 포착, 문학적 감동으로 형상화시킨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박진감에 넘친다. 마치 바둑을 두는 것을 직접 보고 있더라도 하듯 손에 땀이 쥐어진다. 긴장된 두 대국자의 표정이 눈에 선하고 바둑돌 놓는 소리뿐인 대국실의 분위기가 가슴을 짓누른다. 읽어가노라면 내 손에도 바둑돌이 쥐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까지 한다. 바둑이나 棋士를 소재로 한 소설을 몇편 읽어본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바둑소설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역시 가와바타는 장인이요, 그에 알맞는 소재를 구했다는 느낌이 든다.”

작품해설을 쓴 신경림씨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전력투구하는 명인의 모습에서 문학과 인생의 깊은 맛을 해석하고 있다. 이 소설을 번역한 민병산씨(1928-1988)는 재야의 철학자로 철학, 역사논문과 에세이를 발표한 문필가. 「바둑예찬」 「바둑閑話」 등 바둑관계 에세이를 많이 남기기도 했다.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미에 혼인보 슈사이 명인 인터뷰기를 담았다.

출 / A5변형 / 180면 / 4000원

남과 북의 옛정서 모은 동화집

사계절 「남북어린이가 함께 보는 전래동화」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다듬어진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깨닫게 해준다. 남과 북의 갈라섬 없던 옛날 우리 조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 이야기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 공통의 정서를 체득하게 하고 남과 북이 한겨레라는 의식을 심어준다는 의도로 기획된 시리즈의 2차분(5권). 이미 출간되어 화제를 모았던 1차분 5권(「차돌 깨무는 호랑이」 「도둑잡는 두꺼비」 「황금덩이와 구렁이」 「당나귀 알」 「맹맹이 할멈바위」)에 이어 새로이 5권이 발간됨으로써 전10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완결을 본 셈이다.

이번에 발간된 6-10권(「게으름뱅이」 「부채 귀신 잡은 이야기」 「떠돌이 다섯사람」 「병풍 속의 호랑이」 「금강산 이야기」)에는 남쪽의 전래동화 72편과 북쪽 전래동화 85편이 수록

되어 있다. 각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 배열하여 책을 읽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남북의 동질성을 체득할 수 있게 한 것이 편집의 특징.

남쪽의 전래동화는 남쪽에서 전래되는 옛 이야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을 우선 고르되, 이질적인 것은 배제하고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서술방법 또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구어체로 기술, 친근한 느낌을 주는 한편 우리말의 재미와 맛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북쪽의 전래동화는 북한 금성청년출판사에서 간행한 「조선 민화집」(1-16권)에서 가려 뽑았는데, 특히 10권 「금강산 이야기」는 남쪽 어린이들이 거의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명산인 금강산에 얽힌 전설들을 읽음으로써 우리 겨레가 살아온 땅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몽실언니」로 잘 알려진 동화작가 권정생씨와 「날개 달린 아저씨」 「바보온달」 등의 동화를 쓴 바 있는 이현주 목사가 함께 쓰고 엮었다. 사계절 / A5신 / 각 220면 내외 / 각 3000원

글로써, 이 땅을 흔들수 있는 사람

심심찮게 베스트셀러를 창출해 내는, 국일의 든든한 기둥이 될 인재를 찾습니다.

오랜동안 갈고 닦은 문장력과 출판 편집에 남다른 창의력이 있고 무엇보다 정열적으로 일하고 실무에 밝으며 선천적인 '끼'도 겸비한 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은 일이지만 펜으로만이 아니라 혼으로까지 일에 뛰어들 자신이 있으신 분은 지금 당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세요. 봄을 기다리듯, 설레이며 기다리겠습니다.

- *편집부 ○명
- *영업부 ○명
- *경리부 ○명

(반드시 우편접수 • 전화문의 사절)



20세의 원점

캠퍼스의 고독자
어느 순결한 영혼의

사랑과 좌절 그리고
죽음까지의 설화일기

D. 에츠코 지음/정성호 옮김

하권부터 읽는 책임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술취한 철학!

나는 그것을 추구해보고 싶다
이세상에 도대체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부끄러운 청춘, 치열한 삶의 더운피 흘리며
자유(自由)여! 시(詩)여!
아무쪼록, 나를 어떻게 해다오

종로구 창신1동80-3 전화 743-5086, 팩스 745-6279 **국일문학사**